

오페라로 다시 온 동승

동승



서울에서 내려온 대갓댁 미망인이 동승인 '도념'을 보듬어 주고 있는 장면.

사진제공=세종오페라단

주경중 감독의 영화 '동승'이 오페라로 만들어진다. 세종오페라단(예술감독 장선희)은 11월 5일부터 7일까지 매일 저녁 7시 30분 노원문화예술회관에서 국내 초연 창작 오페라 '동승'을 무대에 올린다. 오페라 '동승'의 큰 줄거리는 영화 '동승'과 거의 같다. 어머니를 그리워 하는 동자승 도념의 정서를 불교적으로 해석했다. 하지만 이번 작품은 동양적인 불교 소재를 서양의 음악 장르인 오페라로 각색했다는 점에서 공연전부터 주목을 끌고 있다. 이견용 교수(한국예술종합학교)가 대본과 곡을 쓴 오페라 '동승'을 미리 살짝 들여다보고 '100배 감상'을 위한 내용들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영화 '동승'과 오페라 '동승'의 차이점은?
줄거리와 등장 인물은 영화와 별 차이점이 없다. 다만 30대 중반으로 설정된 상좌 스님인 정심이 자식과 남편을 잃고 서울에서 내려 온 대갓댁 미망인을 사모하는 것은 영화와 다르게 각색됐다.
▲오페라 동승의 전개방식은?
오페라는 기본적으로 음악과 노래, 춤으로 구성돼 있다. 주인공이 부르는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독창곡을 '아리아'라고 하는데 이번 오페라 '동승'은 기본적으로 아리아가 주를 이루고 있다. 모든 출연자들이 아리아를 부르지만 '친정어머니' 역만 내용 전개상 아리아가 없다. 여기에 대사와 연기를 통해 줄거리를 관객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번 공연에는 불교 무용

인 '승무'가 5분 정도 간주곡을 연주할 때 들어가는 데 직접 무대에 나와 춤을 것이 아니라 무대 뒤에 하얀 천막을 마련해 춤사위의 그림자만 관객들에게 보여준다.
▲영화화된 작품을 오페라로 각색했는데 특징이 있다면?
영화 '동승'은 영상미와 배우들의 내연연기가 호평을 받았다. 그런데 오페라는 무대에서 단막극으로 표현하다보니 내연 연기를 관객들에게 전달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동양적인 소재를 서양 장르로 각색하다보니 대사와 심리 묘사에 애를 먹었다고 제작진은 귀띔한다.
▲무대 장치와 조명은?

아리아와 춤 어우러져 극 전개
단조로운 세트 조명으로 극대화
출연진 종교 제각각...예술로 승화
'도념'역 여고생 김지영양 눈길

공연시간이 약 1시간인 단막극이다 보니 무대 장치의 변화가 거의 없다. 눈내리는 겨울 암자가 주요 무대 배경이다. 여기에 묘사체로 들어가는 길은 언덕으로 꾸밀 예정이다. 무대가 단조롭다 보니 화려한 조명 장

치로 다양한 무대를 연출할 계획이다.
▲음악은 어떻게 구성하나?
현악 4중주로 구성된 니르바나실내악단 10여명이 음악을 맡는다. 하지만 이 정도의 인원만 약 1편성으로는 극적인 효과를 표현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제작진은 대안으로 다양한 음색을 나타낼 수 있는 일렉트릭 디지털 피아노를 사용하기로 했다. 또한 도념이 어머니를 찾아 암자를 떠나는 장면에서 극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 목탁소리로 효과음을 낼 예정이다.
▲주인공 '도념'역에 영화와 달리 여자를 캐스팅 했는데.
'도념'역의 연령층에 맞는 남자 연기자들은 대부분 중학교 2년에서 고등학교생 정도다. 오페라는 주인공이 아리아를 불러야 하는데 대부분 남자 배우들은 변성기여서 배역에 적임자를 찾기가 힘들었다. 그래서 선화예술고 2년생인 김지영과 이소윙을 캐스팅했다.
▲배역진들이 대부분 다른 종교를 갖고 있어 불교 작품을 하는데 힘든 점은.
실제로 주지 스님 역의 박성규씨와 정심 역의 이동원씨를 제외하고는 개신교 신자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성악가들이 오페라 '동승'을 단순한 종교 작품이 아니라 예술 작품으로 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었다. 다만 처음에 성악가들을 섭외하는 과정에서 개신교 성악가들이 많아 어려움이 많았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2001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한마음선원 합창제. 현대불교 자료사진

'간암환자돕기 한마음선원 합창제'

간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희망과 자비의 응성공양 메시지가 전달된다.
한마음선원(주지 혜원)은 11월 6일(오후 3시), 7일(오후 3·7시) 양일간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간암환자돕기 한마음선원 합창제'를 봉행한다.
이번 음악회에는 한마음선원 본원 어머니, 거사, 청년, 어린이 합창단과 15개 국내지연 및 해외지연 합창단 등 1천

여명이 무대에 오른다. 공연은 거사·어머니 혼성합창단의 '그 마음 그대로' '해수관음의 빛' '한시루의 대중이여' 등 선법가로 문을 연다.

국내외 15개 지원 등 1천여명 한자리 11월 6·7일 세종문화회관 대극당서

이어 어린이 합창단은 '임의 소식' '첼피연' '댄싱 퀸'을 부른다. 이번 공연에는 '마음의 불씨'와 '일체 제불의

마음'을 음성 공양 할 스님 합창단도 출연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해외 지원 연합 합창단도 가세해 '삼세가 돌아야 노래' '누가 하는 가요' 등을 음성 공양 한다.
이번 공연에는 찬불가만 펼쳐지는 것은 아니다. 본원 혼성 합창단은 '천안 삼거리' '농부가' '경복궁 타령' 등 민요도 들려줄 예정이어서 신명나는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마음선원은 지난 2001년에도 세종문화회관에서 심장병 어린이 돕기 음악회를 개최해 모은 1억원의 성금을 한국복지재단에 전달한 바 있다. (031)470-3173

김주일 기자

동양학의 명문 대유학당 신서안내

▶ 자미두수 입문

※ 4×6배판 변형판 424쪽, 부록 명반매치 CD포함. 저자:이두 김선호. 2004년 8월 발간.



자미두수를 처음 접하는 분들을 위하여 만든 책. 자미두수 명반작성과 명반보는 법을 기초로 14정성과 집성을 명쾌하게 풀이하여 명반주론의 순서를 밝혀 놓았다. 천지인번을 수록한 CD 포함. 혼자서도 가능함. 자미두수입문을 보고, 실전자미두수, 심곡비결, 자미두수전서를 참고로 보면 자미두수에 대한 전문가가 될 수 있음.

▶ 심곡비결

※ 4×6배판 700여쪽. 43,200원. 역자: 이두 김선호. 2004년 7월 발간.



인조번정의 성공을 예측하여 수령을 3년 늘린 심곡선생의 비결서!

▶ 실전 자미두수

※ 변형신국판 700여쪽. 상하 2권, 36,000원. 저자: 이두 김선호. 2004년 1월 12일 출간



"더 이상의 비법은 없다!"고 자부하며... 자미두수계의 선구자 이두 김선호선생의 13년 풍부한 임상경험의 비법을 아무런 사설없이 공개한 책, 사람의 명반을 놓고 "어째 왜 이 사건이 벌어지는가?"에 대해 일일이 별들과의 관계를 추론해 나간 책. 이 두 권만 다 소화한다면 누구나 자미두수를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음.

▶ 자미두수 전서

※ 4×6배판 1,700쪽. 상하 2권, 100,000원 (명반 CD포함) 자미두수의 완결판, 진희이선생의 비급 자미두수전서를 완전번역. 역자: 이두 김선호.



▶ 자미두수 CD (전문가용)

※ 자미두수cd, 매뉴얼, 제작: 대유연구소. 가격: 400,000. 출시기념으로 10월말까지 350,000원에 판매합니다.



생년월일시를 입력하면 자미두수 명반이 포국되고 명반의 별을 클릭하면 별들의 특성에 대해 설명이 된 자미두수입문+실전자미두수+심곡비결+자미두수전서의 내용이 들어있음. 주역점 기문포국 등이 부록으로 달려있음

▶ 음부경과 소서 심서

천부경과 대가 되는 음부경, 한나라 고조를 도와 중국을 통일하게 한 장량의 비책이 이 책에서 나왔다고 하는 저세철학 중의 최고봉 황석공의 소서, 삼국지의 주인공 제갈량의 꾀법비책이 담긴 심서. 총 3권 22,000원



▶ 주역입문(周易入門)2

※ 변형 4×6배판 360쪽 15,000원. 저자: 김수길, 윤상철



하도에서 선천팔괘가 나오고 낙서에서 후천팔괘가 나오는 주역의 원리를 알기쉽게 풀이 +주역 전반에 대한 개괄설명

▶ 근간안내

홍음2, 법륜대법 9일강의 비디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